

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(계란 피프로닐 검사강화)

2017년 8월 21일 / 도쿄지사

구 분(택1)	핵심내용
(통관/검역/라벨링/기타)	☐ 일본검역소 유럽산 계란 및 가공품에 대한 검사강화 조치

주요내용 및 시사점 · 대처방안
☐ 주요내용 ○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계란 및 계육제품의 피프로닐 검출사례와 관련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자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유럽산 계란 및 가공품에 대한 검사강화 조치를 발표함 - 2017.8.17.일자 조치에 의하면 유럽에서 수입되는 계란 및 그 가공품(계란가루, 액란에 한함)에 대해 피프로닐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○ 한국산 계란 및 계육제품의 대일 수출은 없으나, 계란을 사용한 케이크 및 양과자의 일부 수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- 최근1년간의 한국산 수입실적 : 케이크 74톤, 양과자 2kg 등
☐ 시사점 및 대처방안 ○ 금번 검역소 모니터링검사 강화 조치는 유럽산 제품에 한해서만 취해진 조치로 한국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으나 수입바이어들의 경우에는 수입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○ 해당 수출업체는 피프로닐등에 오염된 계란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원료조달확인서등 생산이력 정보를 철저히 갖추어 일본 바이어에게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시 됨
☐ 발표일자/출처 : 2017년 8월 17일 /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사이트 http://www.mhlw.go.jp/file/06-Seisakujouhou-11130500-Shokuhinanzendu/0000174744.pdf

* 1p로 요약 작성, 추가설명자료는 분량제한없이 작성하여 첨부